

## 탈해집단의 사로지역 이주에 대하여

A Study of TalHae () Group's Migration into SaRo () Area

---

저자 (Authors) ,, Lee Hyong-woo, ,

출처 (Source)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15](#), 1994.2, 17-37(21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122969>

APA Style ,, (1994). 탈해집단의 사로지역 이주에 대하여.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15, 17-3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28 10:55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탈해집단의 사로지역 이주에 대하여

李 炯 佑\*

## 〈目 次〉

- |              |                      |
|--------------|----------------------|
| I. 머 리 말     | IV. 탈해왕의 즉위와 사로국의 변화 |
| II. 문헌자료의 검토 | V. 맺 음 말             |
| III. 사로지역 이주 |                      |

## I. 머 리 말

《삼국사기》신라본기에 의하면 사로국은 기원전 1세기 중엽 혁거세의 등장으로 하나의 정치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지금의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사로국이 형성될 무렵 진한지역 즉 낙동강 이동 경상북도 지역에는 《삼국지》나 《삼국사기》신라본기 등을 참고하여 보면 또한 10여개의 소국집단들이 동시에 형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삼국사기》의 초기기록에 관하여서는 역사적 진실성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지만, 이 시기의 내용 중에는 대외관계기사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대외접촉기사 중 특히 탈해집단의 사로지역 이주내용은 《삼국유사》에 보다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로국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나아가 사로국 성장의 일대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嶺南大學校 文科大 國史學科 副教授

따라서 본고에서는 종래의 연구<sup>1)</sup>를 토대로 탈해집단의 사로지역 진출과정과 사로국의 성장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II. 문헌자료의 검토

탈해집단이 이주하여 사로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과정은 잘알다시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脫解尼師今立(一云 吐解) 時年六十二 姓昔 妃阿孝夫人 脫解本多婆那國所生也 其國在倭國東北一千里 初其國王娶女國王女爲妻 有娠七年 乃生大卵 王曰 人而生卵 不祥也 宜棄之 其女不忍以帛裹卵并寶物 置於櫝中 浮於海 任其所往 初至金官國海邊 金官國人怪之不取 又至辰韓阿珍浦口 是始祖赫居世在位三十九年也 時 海邊老母 以繩引繫海岸 開櫝見之 有一小兒在焉 其母取養之 及壯 身長九尺 風神秀郎 知識過人 或曰 此兒不知姓氏 初櫝來時 有一鵲飛鳴而隨之 宜省鵲字 以昔爲氏 又解韞櫝而出 宜名脫解 脫解始以漁釣爲業 供養其母 未嘗有懈色 母爲曰 汝非常人 骨相殊異 宜從學以立功名 於是 專精學問 兼知地理 望楊山下瓠公宅 以爲吉地 設詭計 以取而居之 其地後爲月城 至南解王五年 聞其賢 以其女妻之 至七年 登庸爲大輔 委以政事(《三國史記》, 新羅本紀 脫解王 即位條)

脫解齒叱今(一作吐解尼師今) 南解王時(古本云 丁寅年至者謬矣 近則後於弩禮即位之初無爭讓之事 前則在於赫居世 故知丁寅非也) 駕洛國海中有船來泊 其國首露王 與臣民鼓譟而迎 將欲留之 而舡乃飛走 至於雞林東下西知村 阿珍浦(今有上西知下西知村名) 時浦邊有一嫗 名阿珍義先 乃赫居王之海尺之母 望之謂曰 此海中元無石岳 何因鵲集而鳴 擘舡尋之 鵲集一舡上 舡中

1) 탈해집단의 성격과 이주에 관해서는 신라초기문제를 다룬 논고에는 거의 언급되었으며, 또한 실화를 중심으로한 연구도 많으나 그중 본고에서 다루려는 이주문제와 관계되는 연구 및 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다.

李丙燾, 1977, 《國譯 三國史記》  
 丁寬宇, 1976, 〈三韓의 國家形成(上)〉 《韓國學報》 2, 一志社.  
 李鍾旭, 1980,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 嶺南大 民族文化研究所.  
 文暉鉉, 1983, 《新羅史研究》, 慶北大 出版部.  
 丁仲煥, 1962, 《加羅史草》, 釜山大 韓日文化研究所.  
 三品彰英, 1975, 《三國遺事考証》 上.

有一櫃子 長二十尺 廣十三尺 曳其船 置於一樹林下 而未知凶乎吉乎 向天而誓爾 俄而乃開見有一端正男子 并七寶奴婢滿載其中 供給七日 廼言曰 我本龍城國人(亦云正明國 或云琬夏國 琬夏或作花厦國 龍城在倭東北一千里)我國嘗有二十八龍王 從人胎而生 自五歲六歲繼登王位 教萬民修正性命 而有八品姓骨 然無揀擇 皆登大位 時我父王含達婆 聘積女國王女爲妃 久無子胤 禱祝求息 七年後產一大卵 於是大王會問群臣 人而生卵 古今未有 殆非吉祥 乃造櫃置我 并七寶奴婢載於缸中 浮海而祝曰 任到有緣之地 立國成家 便有赤龍 護缸而至此矣 言訖 其童子曳杖率二奴 登吐舍山上 作石塚 留七日 望城中可居之地 見一峰如三日月 勢可久之地 乃下尋之 即瓠公宅也 乃設詭計 潛埋礪炭於其側 詰朝至門云 此是吾祖代家屋 瓠公云 否 爭訟不決 乃告于官 官曰 以何驗是汝家 童曰 我本治匠 乍出隣鄉 而人取居之 請掘地檢着 從之 果得礪炭 乃取而居爲 時南解王知脫解是智人 以長公主妻之 是爲阿尼夫人……及鴛禮王崩 以光虎帝中元六年丁巳六月 乃登王位 以昔是吾家取他人家故 因姓昔氏 或云 因鶻開櫃 故去鳥字姓昔氏 解櫃脫卵而生 故因名脫解 在位二十三年 建初四年己卯崩 葬疏川丘中……(《三國遺事》, 第四脫解王條)

(前略)忽有琬夏國含達王之夫人妊娠 彌月生卵 卵化爲人 名曰脫解 從海而來 身長三尺 頭圓一尺 悅焉詣闕 語於王云 我欲奪王之位故來耳 王答曰 天命我俾即于位 將令安中國而綏下民 不敢違天之命以與之位 又不敢以吾國吾民付囑於汝 解云 若爾可爭其術 王曰 可也 俄頃之間 解化爲鷹 王化爲鴛 又解化爲雀 王化爲鶻于此際也 寸陰未移 解還本身 王亦復然 解乃伏膺曰 僕也適於角術之場 鷹之鴛 雀之於鶻獲免焉 此蓋聖人惡殺之 仁而然乎 僕之與王 爭位良難 便拜辭而出 到隣郊外渡頭將中朝來泊之水道而行 王竊恐滯留謀亂 急發舟師五百艘而追之 解奔入雞林之界 舟師盡還 事記所載多異與新羅(後略)(《三國遺事》, 駕洛國記條)

장황한 설화의 내용이지만 우선 탈해의 출생지를 살펴보면 《삼국사기》에는 왜국의 동북 일천리쯤 떨어져 있는 多婆那國 출신이라고 하였으며 《삼국유사》에는 역시 왜에서 동북 일천리쯤 떨어져 있는 龍城國, 혹은 正明國, 琬夏(花厦)國 출신이라고 한다.

다파나국이나 용성국 등이 지금의 어느 곳인지 또한 어느 곳이 옳은지 위의 내용 만으로 잘 알 수는 없다. 다만 위의 사료에서 바다를 통하여 처음 금관국(金海)에 도착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바다를 통하여 이주하여온

집단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주하여 오기전, 그의 출생과정을 보면 《삼국사기》에는 다파나국의 왕이 女國의 王女를 아내로 맞이하여 임신한지 7년 만에 큰 알을 낳았다고 하였으며 《삼국유사》, 탈해왕조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왕 함달파가 적녀국의 왕녀를 비로 맞이하여 7년 뒤에 큰 알을 낳았다고 하며, 가락국기에는 함달왕의 부인이 홀연히 임신하여 달이 차서 알을 낳았다고 한다. 왕이 타국의 왕녀와 혼인한지 7년만에 알을 낳게 되자 이를 상서롭지 못하다고 하여 궤속에 넣어 바다로 띄웠다는 것은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이 알에서 태어나자 이를 버리게 한 것과 공통된 점이라 하겠다.<sup>2)</sup> 또한 탈해의 설화는 임신한지 7년 만에 태어났으며, 궤속의 7보를 함께 넣었으며, 잘 도착하여 7일만에 말을 하거나 석충에 7일간 머물렀다는 등 7의 수를 기호하고 있는데 주몽의 설화에서도 그가 7세에 이르러 범인과는 달리 활을 잘 쏘았다고 한다. 이는 신라의 혁거세나 알지설화, 가야의 수로의 건국설화 등이 모두 난생설화이며 천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과 비교된다.

그러므로 탈해집단은 비슷한 난생설화를 취하고 있는 혁거세, 알지, 수로, 주몽집단 중 주몽의 집단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sup>3)</sup>

그리고 탈해의 父가 다파나국의 왕, 용성국의 함달파왕, 완하국의 함달왕이었다고 하며, 그의 모는 여국왕녀 또는 적녀국왕녀라 하였으므로 출생지에서 그의 신분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의 지위였음을 알 수 있다.<sup>4)</sup> 또한 그의 아버지가 그를 바다에 띄워 보내면서 인연이 닿는곳에 이르러 “立國成家”하기를 바랐으며, 그가 금관국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수로왕에게 왕위를 빼앗으려 여기에 왔다고 말한 점 등은 주몽이 부여를 탈출하여 졸본천에서

2) 《三國史記》, 高句麗本紀1, 始祖東明聖王 即位條.

3) 三品彰英은 탈해설화를 인태적출산형으로 고구려의 주몽형 설화와 같은 유형으로 파악하였으며 (三品彰英, 1948, 《神話と文化境域》(三品彰英論文集3), pp.369~378.), 盧重國은 金蛙의 탄생설화와 關智탄생설화의 구도가 비슷하며 해부루가 북부여와 관계되는 것은 탈해가 감포지역을 기반으로 독자의 소국을 세우기 나아가 이사금의 지위에 오르게 된 것과 대응되는 것으로 보고있다. (盧重國, 1990, 《雞林國政》《歷史教育論集》 13·14合, p.184)

4) 이처럼 이주전 사회에서 비교적 중요한 존재였던 그의 이주는 대체로 정치적 분란으로 인하였을 것이라는 이종욱의 견해(1980, 앞의 책, p.56.)는 朱蒙說話내용과 비교하였을때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바로 고구려를 세우게 된 것처럼 탈해의 정치적 역량도 매우 뛰어나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료에서 탈해집단은 해로를 따라 남해안의 금관국을 거쳐 동해안(아진포)에서 어로를 하던 집단의 세력을 규합하여 사로국의 중심부로 진출하였으며, 그가 당시 사로국의 유력한 실력자였던 호공의 집터를 빼앗는 계책으로 “我本治匠”이라 한 것으로 미루어 보다 우수한 철기문화를 소유하고 있었던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5)</sup> 즉 북방대륙계의 야철족인 탈해집단은 해로를 통하여 이주하여 왔기 때문에 육로를 통한 집단과는 구별되는 난생설화를 취하게 되었을 것이다.

탈해집단을 북방 흉노계문화와 관련있다고 본 천관우는 《隋書》와 《北史》新羅傳에 “그 왕은 본래 百濟人으로 自海逃入新羅하여 마침내 그 나라 王이 되어 傳祚하여 金眞平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참고로 여기서 신라왕은 탈해왕을 지칭하며 따라서 백제 2년의 한강하류 일대에서 해로로 남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sup>6)</sup> 해로를 따라 금관가야지역에 도착하기전 한반도 중부의 어느 곳에서 머물렀는지를 속단할 수 없으나, 앞의 사료 가락국기조에 탈해와 수로왕 사이의 왕위쟁탈 기사 중 “하늘이 나를 명하여 왕위를 오르게 하고 장차 국내를 안정시키며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였다”는 내용과 또 《三國遺事》東夫餘條에 “천제가 장차 나의 자손으로 이 곳에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 너는 이곳을 피하라”는 주몽이 장차 왕이될 징조를 이르는 설화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탈해집단은 보다 우수한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한 북방대륙계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탈해집단이 금관가야지역에 도착하였을 때의 상황을 보면 《삼국사기》에는 단순히 금관국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기어 취하지 않자 다시 진한지역의 아진포에 이르렀다고 하였으나, 《삼국유사》의 탈해왕조에는 수로

5) 千寬宇, 1976, 〈韓의 國家形成〉 《韓國學報》 2, p.26.

——編, 1976, 《韓國上古史의 爭點》, 一潮閣.

文際鉉, 1983, 앞의 책, pp.54~55.

三品彰英, 1975, 앞의 책, p.494.

6) 千寬宇, 1976, 앞의 글, pp.26~27.

왕이 백성들과 함께 북을 올리면서 맞아 머물도록 하였으나 베는 나는 듯이 달려 계림의 동쪽 하서지촌 아진포에 이르렀다고 하였으며, 가락국기조에는 비록 신라의 기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탈해의 우람한 체구와 또 수로왕과 여러가지 기술을 통하여 왕위를 다투다가 계림지경으로 쫓겨난 자세한 내용이 전하고 있다.

다분히 설화적인 내용이지만 탈해집단이 처음 정착하였던 김해지역의 금관국을 세력근거지로 삼으려고 하다가 수로집단에 쫓겨 나게된 자세한 내용을 전하는 가락국기의 설명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탈해집단의 다음 정착지였던 동해안의 아진포와 여기서 다시 사로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내용은 장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 III. 사로지역 이주

탈해집단이 수로왕의 세력에 밀려 다시 해로를 따라 북상하여 두번째로 다다른 곳이 《삼국사기》에는 “又至辰韓阿珍浦口”, 《삼국유사》에는 “至於雞林東下西知村阿珍浦”, “奔入雞林之界”로 아진포는 진한 또는 계림국에 속한 포구로 되어있다.

탈해집단이 동해안의 아진포에 도착한 시기는 혁거세 39년(B.C 19년)으로 당시 사로국의 세력범위는 지금의 경주일대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더우기 신라의 국호가 계림으로 불려진 것은 김알지의 탄생에서 비롯되었으며’<sup>7)</sup> 계림국을 알지대에 김씨집단이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형성한 것으로 본다면<sup>8)</sup> 탈해집단이 아진포에 도착하였을때 그지역은 사로국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였던 진한의 일부였다.

따라서 뚜렷한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동해안 지역에 정착한 탈해집단은 그 곳에서 어로생활을 하면서 점차 그 영역을 내륙으로 넓혀갔다고

7) 《三國史記》，新羅本紀1，脫解王 9年條。

《三國遺事》，紀異1，新羅始祖赫居世條。

8) 盧重國，1990，앞의 글，p.182。

보여진다. 그러면 여기 하서지촌의 아진포는 어디였을까 살펴보기로 한다.

앞의 《삼국유사》, 탈해왕조에는 “今有上西知 下西知村名”으로 고려시대에 상서지와 하서지촌이 계림(경주)의 동쪽에 있다고 하였으며 또 《삼국유사》, 신라시조 혁거세왕조에 “是爲漢枝部 又作韓枝部 裴氏祖 今云加德部 上下西知 乃兒等 東村屬焉”으로 상서지, 하서지, 내아 등이 동촌에 속한다고 한다.

한편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1 경주부 고적조를 보면 아진포에 관하여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탈해관계 내용을 요약하였을 뿐, 나정이나 알영 정처럼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동 고적조와 봉수조에

- 下西知本柵 在府東六十里 內有一池二井
- 下西知燧燧 在府東六十三里 南應蔚山郡柵里北應 禿山

으로 하서지목책과 하서지봉수가 경주부에서 동쪽으로 약 60여리 지점에 위치하여 있다고 한다. 또 《大東地志》에도

- 下西知木柵 東六十里……(《大東地志》, 경주진보조)

로 하서지는 부의 동쪽 약 60여리에 위치한다고 하였으며 《大東輿地圖》에는 하서지봉수가 감포 북쪽에 표시되어 있다.(그림 I 참조)그런데 《대동여지도》를 보면 감포의 위치가 지금의 감포보다 훨씬 아래인 지금의 하서리에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앞의 여러 문헌자료들을 참고로 하여 지금까지 탈해 집단의 정착지인 아진포를 대부분 지금의 경상북도 영일지역<sup>9)</sup> 또는 경주군 감포부근으로 비정하여<sup>10)</sup>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탈해집단이 정착한 아진포에서 사로국의 중심지인 지금의 경주지역까지 진출하는 과정은 사로국의 성장과 대단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9) 李丙燾, 1977, 앞의 책, p.33.

10) 千寬宇, 1976, 〈弁辰韓諸國의 位置試論〉 《白山學報》 20, p.27.

丁仲煥, 1962, 앞의 책, p.67.



동서쪽으로 길게 이루어 놓았다. 따라서 경주지역은 형산강 하류를 따라 동해안의 영일만과 통하고 있다.

따라서 동해안의 아진포에서 탈해집단이 정착한 사로국의 중심지인 경주까지의 진출은 추령을 가로질러 통과하기란 엄청난 장애로 보여지며 울산방면의 형산강 상류나 영일방면의 형산강 하류쪽을 통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아진포를 영일지역이나, 지금의 감포부근으로 비정한다면 탈해집단은 영일만 쪽의 형산강 하류에서 경주지역으로 거슬러 올라 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형산강 하류와 사로국 사이에는 일찌기 음집벌국이라는 유력한 정치집단이 존재하고 있었다.<sup>11)</sup>

물론 당시 음집벌국의 구체적인 위치나 성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하겠다. 더우기 앞의 《삼국유사》에는 탈해집단이 토함산을 통하여 城中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탈해집단이 정착하였던 아진포를 영일지역이나 감포부근으로 보지 않고 위의 두지역보다 남쪽에 어느 곳에 정착하여 형산강의 상류인 남천과, 토함산을 거쳐 사로지역으로 진출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sup>12)</sup>

지금의 감포에서 남쪽으로 해안을 따라 10여km쯤 떨어진 곳에 경주군 양남면이 있다. 양남면은 동대산맥의 동쪽 사면상의 해안에 산지가 비교적 많으며 동해로 흘러가는 나아천, 하서천, 관리천 등 3하천의 유역과 해안을 따라 취락이 분포되어 있다. 이 중 나아천이 동해와 만나는 어구에 일찍부터 형성된 마을을 나아리라고 한다. 이 나아리마을을 주변사람들은 나아(羅兒), 내아(乃兒), 나아지(羅兒知), 나아포(羅兒浦), 모포(牟浦)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또 버릿개, 아진포(阿珍浦)라고도 한다.<sup>13)</sup> 여기서 羅兒는 바로 신라의 탈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보면 나아리는 바로 탈해집단의 정착지에서 유래되었다고

11) 《三國史記》 34, 地理志 義昌郡條.

12) 문경현은 탈해설화로 보아 탈해진입로는 지금의 봉길리 용당포에서 대중천을 거슬러 토함산을 거쳐 경주평야로 진출한다고 한다. (文暉鉉, 1983, 앞의 책, p.55.)

13) 한글학회 편, 1979, 《한국지명총람》 7, pp.250~251.

慶尙北道 教育委員會 편, 1984, 《慶尙北道地名由來總覽》, pp.492~496.

하겠으며 또한 나아리의 도로 맞은편 마을은 수아(收兒), 수애(水愛)라고 부르는데 역시 탈해를 거두어 들였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겠다. 그리고 수아, 마을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장아(長兒, 長阿), 양아(養兒, 養阿)리라는 마을 역시 탈해가 이곳에서 성장하였다는 언덕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또한 나아천과 동해가 만나는 지점의 해변에 탈해가 내렸던 곳이라 부르던 넓은 바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으며, 나아리 마을 주민은 모두 이주하여 그 명칭조차 사라지고 말았다. 다만 건설현장 북편 송림가운데 탈해가 도착하였다는 장소를 알리는 비석만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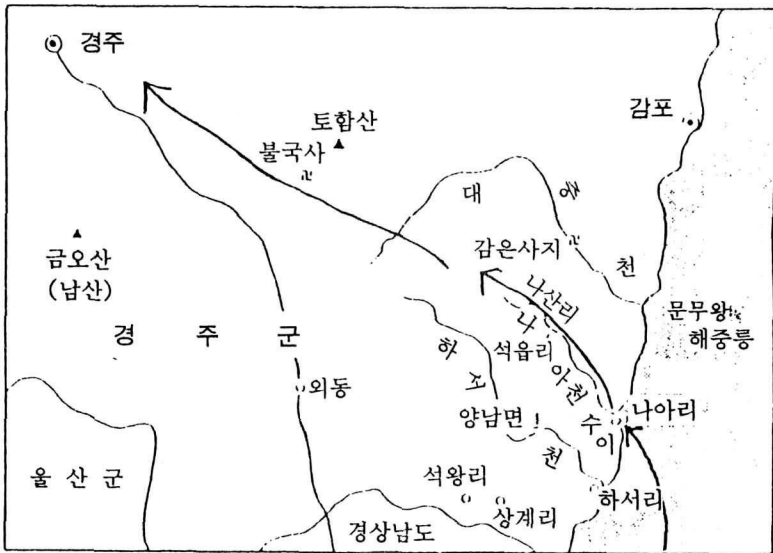
나아리의 남쪽에 접하여 있는 하서천 유역일대는 행정구획상 경주군 양남면 하서리이다. 아진포를 계림의 동쪽 하서지촌에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동서 신라시조 혁거세왕조에도 상·하서지, 내아 등 동촌이 가덕부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아진포와 내아를 나아천 유역의 나아리로 보았을 때, 상서지촌의 위치는 현재로는 잘알수 없으나 아진포, 내아와 인접한 하서천 유역의 하서리일대로 비정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하서리의 남쪽 상계리에는 서왕(西王)으로 불리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오래전부터 석탈해왕릉이라고 전하여지는 큰 무덤이 유래가 되어 석왕리(昔王里), 석왕릉리(昔王陵里)라 부르다가 서왕으로 개칭하였다고 한다.<sup>14)</sup> 이처럼 양남면의 나아리, 하서리, 서왕리 등지는 《삼국유사》에 전하는 동촌의 하서지, 내아 등의 지명이라 하겠으며 따라서 지명유래 등으로 볼 때 《삼국사기》 등에 전하는 탈해의 정착지인 아진포는 바로 지금의 경주군 양남면 나아리 일대였으며 하서리 일대를 무대로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다고 하겠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동여지도》에 甘浦를 지금의 위치보다 훨씬 남쪽의 하서리에 잘못 표시하여 놓았기 때문에 기왕의 연구에서 탈해의 정착지를 영일이나 감포 북쪽으로 비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수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 탈해집단이 양남면의 아진포일대에 도착하였을

14) 앞의 주 참조.

당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이 이웃한 정치집단과 교류가 거의 불가능하였으므로 토착집단은 바다를 이용한 어로, 채취를 주로한 조그만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탈해집단이 이들 토착 세력을 쉽게 흡수하고 나아친, 하서친 상류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토합산을 거쳐 사로국의 중심부로 진출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sup>15)</sup>(그림 II 참조)



탈해집단의 사로국의 중심지역까지 진출하여 선주지배세력인 혁거세집단과 함께 지배세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당시 사로국의 막강한 정치적 실력자였던 호공의 세력기반을 흡수하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15) 노중국은 석씨세력은 석탈해의 설화에서 보듯이 바다를 건너 한반도를 이동해 온후 감포방면에 최종적으로 정착하여 하나의 소국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盧重國, 1990, 앞의 글, p.180) 이종욱은 탈해집단이 대규모의 이주집단과 함께 경주에 왔다는 흔적은 찾기 힘들며 어찌면 사로국에 정착한 후, 토착 또는 선주의 세력들과 연맹을 맺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李鍾旭, 1980, 앞의 책, p.53.)

호공은

- 瓠公者 未詳其族姓 本倭人初以瓠繫腰度海而來 故稱瓠公(《三國史記》, 新羅本紀1, 始祖赫居世居西干 38年條)

으로 탈해집단보다 먼저 사로지역에 이주하여 왔으며, 특히 두 집단은 비슷한 경로를 통하여 들어온 동일한 문화적 요소를 갖춘 계통으로 쉽게 결합하였다고 생각된다.<sup>16)</sup> 호공과 결합한 탈해는

- 王聞脫解之賢 以長女妻之(《三國史記》, 新羅本紀1, 南解王 5年條)
- 以脫解爲大輔 委以軍國政事(《三國史記》, 新羅本紀1, 南解王 7年條)

로 곧 박씨계와 혼인을 통하여 대보의 자리에 올라 사로국의 군국정사를 관장하였으며 뒤에 그가 즉위하여서는 호공을 다시 대보로 삼아 군국정사를 맡기고 왜와 수교를 맺게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겠다.<sup>17)</sup> 이처럼 남해왕대에 사로국의 지배세력인 박씨집단과 함께 지배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탈해는

- 昔南解將死 謂男儒理瑯脫解曰 吾死後汝朴昔二姓以年長而嗣位焉…… (《三國史記》, 新羅本紀1, 儒理王 即位條)

으로 남해왕의 아들인 유리와 함께 왕위계승권을 논하게 되었으며 드디어는 유리왕의 뒤를 이어 박씨대신 사로국의 4번째 왕으로 추대되었다. 박씨세력을 배경으로 왕위에 오른 탈해는 곧이어 김씨세력과도 연합을 하였으나<sup>18)</sup> 박씨의 친척으로 하여금 州, 郡을 나누어 다스리게 한 점<sup>19)</sup>이나 더우기 사로국이 활발한 대외활동을 전개하며 정복국가의 형태로 탈바꿈하였던 2세기 후 왕위가 계속 박씨계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석씨세력이나 김씨세력은 박씨세력에

16) 이종욱은 탈해는 호공과 달리 일찍이 사로지역에 살다가 언제인가 그 장소는 알 수 없으나 왜지역으로 이주하였고 다시 사로국 초기에 다시 사로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고있다.(李鍾旭, 1982, 《新羅國家形成史研究》, pp.121~122.)

17) 《三國史記》, 新羅本紀1 脫解王 2, 3年條.

18) 《三國史記》, 新羅本紀1, 脫解王 9年條.

19) 《三國史記》, 新羅本紀1, 脫解王 11年條.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겠다.

#### IV. 사로국의 변화

사로지역에 진출한 탈해가 호공의 세력을 기반으로 남해왕의 뒤를 이어 사로국의 왕으로 즉위한 것은 1세기 중엽이었다. 이 무렵 진한지역에는 사로국을 비롯한 10여개의 독자적인 정치집단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맹주국의 역할을 할만큼<sup>20)</sup> 변화된 사로국을 제외하면 나머지 정치집단들은 우열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sup>21)</sup>

한편,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면

- 倭人行兵……(赫居世 8年條)
- 卞韓以國來降(赫居世 19年條)
- 樂浪人將兵來侵……(赫居世 30年條)
- 遣瓠公聘於馬韓……(赫居世 38年條)
- 東沃沮使者來獻良馬二十匹……(赫居世 53年條)
- 樂浪兵至 圍金城數重……(南解王 元年條)
- 倭人遣兵船百餘艘掠海邊民戶 發六部類兵以禦之 樂浪謂內虛 來攻金城甚急……(南解王 11年條)
- 華麗不耐二縣人連謀 率騎兵犯北境……(儒理王 17年條)

사로국은 일찍부터 마한, 왜, 낙랑, 동옥저 등과도 관계를 맺었던 것 같이 보이거나 위의 내용 모두가 서력 기원전에서 A.D 1세기 초중엽 혁거세, 남해, 유리왕대의 사로국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특히 화려, 불내인이 북경침입, 북명인이 예왕인을 바친것이나 고구려가 낙랑을 멸하자 그 나라사람 5천이 투항해와 육부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는 내용<sup>22)</sup> 등은 이 시기 사로국의 영역이 지금의 경주분지를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보았을 때 이러한 일련의 기사들은 진한지역의 다른 정치집단들과 관련된 활동내용으로 보는 것이 더욱

20) 千寬宇, 1976, 〈三國志 韓傳의 再檢討〉 《震檀學報》 41, p.27.

21) 李鍾旭, 1982, 앞의 책, p.79.

22) 《三國史記》, 新羅本紀1, 儒理王 14年條.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유리왕의 뒤를 이어 사로국의 제4대왕으로 즉위한 탈해는 그 다음해(A.D 58)에 호공을 다시 자신이 담당하였던 대보의 자리에 앉히고 3년에는 왜국과 친교를 맺고 사신을 교환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전하는 탈해왕대의 기사를 보면,

- 馬韓將孟召以覆巖城降(5年條)
- 百濟王拓地 至娘子谷城 遣使請會 王不行(7年條)
- 百濟遣兵 攻蛙山城 冬十月 又攻狗壤城 王遣騎二千擊走之……(8年條)
- 百濟攻取蛙山城 留二百人居守 尋取之(10年條)
- 百濟來侵(14年條)
- 倭人侵木出島 王遣角干羽烏禦之 不克 羽烏死之(17年條)
- 百濟侵邊 遣兵拒之(18年條)
- 百濟攻西鄙蛙山城 拔之(19年條)
- 遣兵伐百濟 復取蛙山城 自百濟來居者二百餘人 盡殺之(20年條)
- 阿漭吉門與加耶兵戰於黃山津口 獲一千餘級……(21年條)

으로 재위 24년 중 원년(즉위내용), 2년(瓠公기사), 3년(倭國結好交聘), 11년(州主, 郡主기사), 23년(天變기사), 24년(天變, 王薨기사)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백제, 왜와의 국경분쟁 혹은 전쟁기사이다.

더우기 이들과 분쟁한 지역은 소백산맥, 황산지구, 목출도 등으로 당시 사로국과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곳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삼국사기》를 보면, 사로국은 탈해 다음의 파사왕대인 2세기 초엽부터 성곽을 축조하고<sup>23)</sup> 군사훈련<sup>24)</sup>을 통하여 주변의 제소국들을 병합하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그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sup>25)</sup>

이처럼 사로국은 2세기 초엽에 이르러 분명하지 않지만 동해안, 청도, 경산지역 일대를 그 세력권에 포함시키게 되었으며, 나머지 진한 제소국과

23) 《三國史記》, 新羅本紀 파사왕 8년조.

24) 《三國史記》, 新羅本紀 파사왕 15년조.

25) ……以兵伐首泚伐國 其主與衆自降 悉遣押督二國王來降……(婆娑王 23年條)  
……遣兵伐比只國多伐國草八國并之(婆娑王 29年條)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되었다고 보여진다.<sup>26)</sup>

그렇다면 앞의 탈해왕대 기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까지 일본인 학자들을 비롯하여 대부분 이는 《三國史記》 불신의 대표적 기사로 취급하게 되었다. 필자는 탈해왕대 본기기사는 앞의 혁거세, 남해, 유리왕대 대외관계 기사와 같이 사로국의 활동내용이 아니라 진한지역의 다른 정치집단과의 관련기사로 후일 이들 집단이 사로국에 편입되었으므로 여과없이 초기 신라사에 다루어진 결과로 파악하였다.<sup>27)</sup>

그런데 《삼국사기》 본기의 탈해왕조 기사에서는 보이지 않는 열전 거도조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목된다.

居道 失其族姓 不知何所人也 仕脫解尼師今 爲干 時于尸山國居柒山國 介居鄰境 頗爲國患 居道爲邊官 潛懷并吞之志 每年一度集群馬於張吐之野 使兵士騎之 馳走以爲戲樂 時人稱爲馬叔 兩國人 習見之 以爲新羅常事 不以爲怪 於是 起兵馬 擊其不意 以滅二國

즉 이는 탈해왕대의 사실로 이는 사로국 최초의 대외진출에 관한 내용이라 하겠다. 위의 기사에 보이는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이 위치하였던 곳은 분명하지 않다.

《삼국사기》, 지리지 동래군조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래현조에

- 東萊郡 本居柒山郡 景德王改名 今因之(《三國史記》, 地理志 東萊郡條)
- 東萊縣 古菴山國(或云萊山國) 新羅取之 置居柒山郡 景德王改今名…… (《新增東國輿地勝覽》 東萊縣 建置沿革條)

이라 한 것을 보아 거칠산국은 지금의 동래부근이라 추정되며<sup>28)</sup> 한편

26) 李炯佑, 1992, 〈新羅初期國家成長史研究〉, 博士學位論文, p.142.

———, 1988, 〈伊西國考〉《韓國古代史研究》, p.24

27) 李炯佑, 1991, 〈斯盧國의 성장과 주변小國〉《國史館論叢》 21.

28) 李丙燾는 옛지명 중에尸는 R음(腹의 略)의 표시물로 썼으므로 于尸山은 지금의蔚山에 해당되며 居柒山國은 지리지의 기사로 보아 동래군 부근이라 비정하였으며(앞의 책, p.331) 丁仲煥은 于尸山國, 居柒山國은 같이 동래일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三國志》의 변진독로국에 해당된다고 한다.(1970, 〈濟盧國考〉《白山學報》 8, pp.65~69)

## 《대동지지》 동래조에

- 本居漆山國(一云 莢山國古址: 在府東十里)新羅脫解王二十三年取之 置居漆山郡 景德王十六年改東萊郡……(《大東地志》 東萊 沿革條)

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이 보인다.

그리고 우시산국은 거칠산국과 인접한 정치집단이었다면 일단은 지금의 경주와 동래사이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시산국은 지금의 울산에 비정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거도전의 거칠산국과 우시산국은 지금의 동래, 울산지역으로 비정한다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탈해왕대에 사로국은 대외진출을 개시하기 이전으로 이처럼 먼 지역까지 대외진출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역시 알른 수공이 가지 않으며 더우기 설화성이 짙은 거도전의 내용은 신라본기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훨씬 후대인 지증왕대에 이사부가 또한 거도와 같은 방법으로 가야를 정벌한 내용이 전하고 있어<sup>29)</sup> 탈해왕대의 사실로 보기에는 망설여진다.

그래서 위 열전의 기사는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순한 설화일 뿐이며 오히려 《삼국사기》 초기기사 불신의 한 예로 취급하였다.

필자는 위 열전의 탈해왕대 우시산국, 거칠산국 병합기사는 탈해집단의 사로지역 진출과정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앞서 본 것처럼 탈해집단이 정착한 진한지역의 아진포는 동해안, 지금의 경주군 양남면 나아리로 쉽게 도착세력을 흡수하면서 그 중의 우수한 문화를 바탕으로 내륙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며, 그 진출코스는 나아천, 하서천과 형산강의 상류인 남천을 따라 토함산을 통하여 사로지역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므로 탈해집단이 정착하여 사로지역으로 진출하였던 코스와 그 주변지역은 사로국이 주변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나가기 전이지만 탈해가 사로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됨으로 저절로 사로국의 영향권에 들어 왔다고 볼

29) 《三國史記》，列傳 異斯大降.

수 있을 것이다.

## VI. 맺 음 말

형산강 중류인 지금의 경주분지를 중심으로 형성하고 있었던 정치집단은 기원전 1세기 중엽 혁거세의 등장으로 사로국으로 성장하였다. 이즈음 보다 선진금속문화를 바탕으로 한 탈해집단의 이주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의 내용을 보면 사로국 성장의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왕의 연구는 탈해집단의 이주와 그의 즉위, 특히 신라본기에 전하는 탈해왕대의 기사는 당시의 역사적 사실로 파악하기보다 단순한 설화의 내용으로만 취급하였다. 특히 탈해왕대의 정착지인 아진포의 위치를 영일이나 감포로 비정함으로써 더욱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필자는 아진포의 위치를 지금의 경주군 양남면 나아리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탈해집단은 나아천, 하서천을 따라 토함산을 거쳐 사로지역으로 진출하였으며 나아가 그가 사로국의 지배세력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동일한 계통으로 선주한 호공세력과 쉽게 결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보았다. 그리고 사로국이 대외로 세력을 팽창하기 이전인 탈해왕대에 울산, 동래방면의 진출내용(거도전)도 탈해의 사로지역 이주와 관련시켜 보았다.

그러므로 사로국은 탈해집단의 이주로 보다 우수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으므로 곧이어 정복국가의 형태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 討 論

(司會：金福順)

司會：이형우선생님께서 초기 신라의 발전양상에 대해서 많은 논고가 있으신데 이번에는 사로국지역으로 탈해집단이 이주해 오면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북대학교에 계시는 이문기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李文基：경북대학교 이문기입니다. 앉아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에 참석케 해주신 주최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 자신이 깊은 공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만은 몇가지 질문을 드림으로써 책임을 면해 볼까합니다.

신라의 여명기가 올바르게 혹은 제대로 복원 되어 있지 못한 사실은 아마 대체로 느끼고 있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관련자료의 절대 빈곤에서 기인된 것이지만은 빈약한 사료마저도 설화적 성격이 짙게 내포되어 있어서 그것이 과연 어떤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혹은 어느정도 취신하는 것이 당대 역사상에 근접하는지 등의 여러 문제가 거기에 중첩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더구나 신라사의 초기기사에 대해서는 발표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불신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있기도 한 그런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신라사의 여명기에 대한 연구는 부진을 면치 못해온 것이 학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같은 연구사적 견지에서 보자면 신라사의 여명기에 등장하는 주요사건인 탈해의 사로지역 이주문제를 다룬 본 발표는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탈해의 최초 정착지를 경주군 양남면 하서리로 비정을 한 점이라든지 탈해의 경주진출로를 나아친, 하서천 상류, 토함산 경주분지로 연결되는 코스를 상정해 본 것들은 청중할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로국의 최초 대외진출 방향이 거칠산국과 우시산국 방향이었다는 것을 탈해의 사로지역 이주와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있는 점도 일정하게 수긍이 가는 대목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미 발표자께서 말씀해주신 바 처럼 설화적 성격이 강한 사료를 어느정도 우리가 취신해야 되는가 하는 사료상의 기본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이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토론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 않나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의를 해두고 저는 발표자의

논지를 토대로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려서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탈해집단의 성격에 대한 발표자의 구체적인 견해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발표논지에서도 몇차례의 이야기가 있었습디만 일단 탈해집단을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혁거세세력보다도 우수한 문화를 가진 집단이라는 성격에 관한 간략한 언급이 있었습디다. 그리고 기존의 견해 가운데에서는 탈해를 해양과 관련된 어로집단이니, 혹은 철기문화의 보유집단이니, 북방 유이민계통이니 하는 등의 견해가 제시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발표자께서는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나 싶습디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점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지, 요지문 4페이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디만은 왜인 출신으로 나오는 호공을 탈해집단과 비슷한 경로를 통해 들어온 동일 문화요소를 갖춘 집단이라는 그러한 해석이 좀 더 설득력을 갖게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 볼것은 탈해집단이 과연 사로지역에 이주한 시기가 언제 쯤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탈해에 관한 자료는 발표자께서 제시한 삼국사기 탈해왕 즉위조나 삼국유사 탈해왕조 외에 가락국기조에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에 의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탈해가 사로지역에 정착하기 이전에 금관국 혹은 가락국의 김수로와 분쟁을 벌이는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시기를 수로의 가락국 건국연대와 비교하면 사실상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사료의 신빙성 문제라든지 기년문제와 직결되는 복잡한 것으로 여겨집디만 설화적 자료에서 역사적 사실을 추출해 볼려고 한다면 그 전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디다. 그래서 탈해집단의 사로지역 이주시기에 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았습디다.

세번째로 또 발표자께서는 탈해집단의 사로지역 이주 그 자체는 사로국의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 내용을 제가 너무 확대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디만 대략 논지를 이해하자면 주변지역에 대한 정복의 개시 및 정복지역에 대한 새로운 통치방법의 강구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디다. 그런데 기존의 견해 가운데서 신라의 정복활동 개시기는 가장 빨리 소급한 견해가 대략 1세기 후반 2세기 초의 파사왕대라는 주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발표자는 기왕의 견해보다도 신라의 정복 개시기를 더욱더 올려 잡아서 상정한 셈인데요, 과연 탈해집단의 사로지역 이주가 그와같은 정복개시에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디다.

토론자로서 몇가지 질문을 던지고는 있습니다만 먼저 고백을 해 두자면 사실

저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司會 : 다시 정리를 해드릴 것도 없을것 같습니다. 이형우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李炯佑 :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문기선생님께서 세가지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마 다섯가지 열가지도 더넘지 싶은데……, 이 세가지도 사실 제가 명확한 답을 드리지 못할것 같습니다. 저도 짧게 쓰면서, 사실 요지를 좀 더 많이 쓸 수도 있었는데 하도 조심스러워서 짧게 쓰면서도 이를 그냥 멍멍거리서 우수한 문화집단 뭐 이렇게 해 버렸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보다 우수한 선진문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첫번째 질문하신 어로집단인가, 철기문화를 보유한 집단인가 하는것은, 저도 그전에 다른 선생님들이 쓴 원고를 보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로집단으로 보는 견해 혹은 철기문화를 소유한 집단 그리고 출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쉽게 그 들어온 루트를 아까 위에서 본 삼국사기와 유사에 볼 것 같으면 어쨌든 김해지역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 왔다 또는 바다를 통해 들어 왔다. 그러나 이제 바다를 통해 들어 왔고 옆의 아진포부근 거기에서 왔다고 해서 꼭 어로집단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둘 가운데 꼭 어느 것이냐 한다면은 오히려 뒤에 보다 우수한 금속문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집단이다. 그래서 그 해안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근에서 생활하다 보니 어로와도 관계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것을 굳이 어로 집단쪽인가 아니면 철기문화집단인가 하면 오히려 후자쪽이 더 가깝지 않았는가 저는 이런식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호공과 같은 계통이라고 하는것은 호공이 바다를 통해서 들어 왔고 뒤에 탈해 역시 같은 루트를 통해 들어 왔기 때문에 동일한 문화요소를 갖춘 집단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이주시기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 이문기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김수로와 분쟁을 한 그 내용과 탈해가 진한지역에 정착한 연대와는 약 60년~70년, 즉 70년 정도의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년문제는 사실 이 시기뿐만아니고 그 뒤에도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빼버렸는데, 이것도 굳이 양서의 다른 내용을 어느쪽에 더 무게를 실느냐고하면은 저는 사기쪽으로 택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다고해서 삼국사기 연대가 맞고 삼국유사의 내용이 이것과 관계없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편년문제는 저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을 참고하겠습니다.

세번째, 이 사로국이 초기에 대외로 진출하는 그러한 시기문제인데 종래에 이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파사왕대부터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제 글의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사왕대부터 그 형산강 하류쪽 음집벌국쪽으로 가는 그것이 대외진출의 처음인데, 그런데 지도쪽에 볼 것 같으면 우시산국 거칠산국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위치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지역이 종래의 견해대로 울산과 동래 그 부근이라고 한다면은 탈해집단이 하서리일대 정착을 해서 남천상류로 오는 것이. 지금 지도를 보면은 저 밑에 있는 관문성하고 일치합니다. 이렇게 하서리하고, 그러니까 탈해집단이 거기에서 정착을 해서 들어온 그 지역은 탈해가 왕이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일대는 사로국의 영향이 미치게 되었던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탈해왕대에 우시산국, 거칠산국하는 것은 영역을 확보해 가는 그러한 정책적 차원에서 확보된 것이 아니고 탈해가 그 지역에 들어 왔으니가 자연스럽게 사로국의 영역은 그 쪽으로는 미리 확보가 되었다. 그래서 본격적인 영역의 확보는 형산강하류를 따른, 그 지역으로 진출한 파사왕대부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세번째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司 會 : 예 질문을 길게 하시고 답변도 길게 하셔서 더 이상 질문없으셔도 되겠죠. 저기 김원주선생님 뭐 질문하나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나갈까요? 예. 시간 관계상 다음 발표로 넘어 가겠습니다.